

2001년 국제 석유시장 전망과 과제



이 문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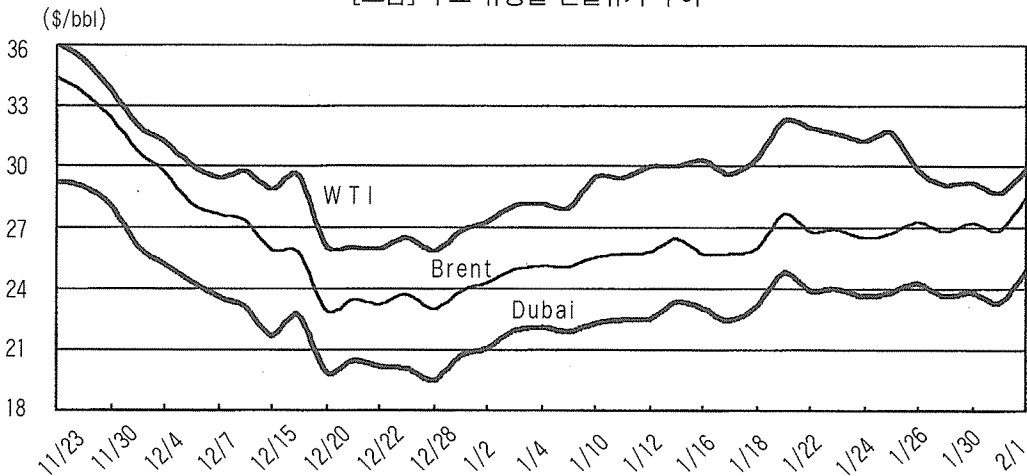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개괄 및 최근 시장동향

2000년 한해 동안 산유국들의 4차례에 걸친 증산에도 불구하고 꺾일 줄 모르던 국제 석유가격이 지난해 11월말부터 연말까지 약 한달 동안 무려 25%나 떨어지면

서 우리 나라와 같은 석유 수입국들에게 다소의 안도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1월에 들어오자 OPEC이 유가방어를 선언하며 다시 감산체제로 돌아서고, 이라크의 파행적인 원유수출 행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연말대비 배럴당 5달러 이상 오르는 추세에 있다.

[그림] 주요 유종별 현물유가 추이



2001년 국제석유시장은 세계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 정도에 따른 석유수요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OPEC의 산유량 조정이 연중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OPEC은 이미 지난 1월 1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산유량을 150만 b/d 감산키로 결의하였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작년에 채택한 "Price Band Mechanism"을 그대로 가동시키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영향으로 올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20 이하로 대폭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Dubai 원유 기준 배럴당 \$23~\$24를 중심으로 분기별 수급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큰 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 석유시장의 요인별 분석과 전망

올 한해 세계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체로 아래의 6개 항목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이스라엘 사론 내각의 출범으로 새롭게 전개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중동평화협상을 둘러싸고 나타날 갈등도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6개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세계 경제성장
- ② OPEC의 원유생산 정책
- ③ 이라크 경제제재의 변화 가능성과 원유수출
- ④ 비OPEC의 원유생산
- ⑤ 주요 소비국의 상업재고 변화
- ⑥ 석유선물시장의 투기수요

1) 세계경제 성장

올해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2000년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미국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계경제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 특히 대미의존률이 확대되어 왔던 아시아지역의 경제도 함께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미국경기 약화

는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원가부담과 외환부문에서 저유로(Euro) 등 달러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실업률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가 2000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경제성장률은 4.2%로 2000년 추정치 4.7% 보다 0.5%p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관심의 대상인 미국 경제성장률은 3.2%로 2000년 추정치 5.2% 보다 2.0%p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치는 미국경제의 연착륙을 예상한 것으로 만일 예상밖의 경착륙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권역별로 보면, OECD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3.2%로 전망하였는데 선진국 가운데 일본 경제만 그 동안의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일본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책 등으로 2000년 보다 0.4%p 높은 1.8%의 경제성장률로 전망되었을 뿐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3.4%로 대체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하강하는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지역 신흥공업국들은 세계경제와 특히 미국경제의 둔화추세 전망의 영향으로 6.1%의 경제성장률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00년 GDP성장률보다 1.8%p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석유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세계 석유수요의 1/4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변화는 산유국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 에너지전문기관들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원유가격이 작년보다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2001년 국제유가(복합가격)를 2000년 보다 약 13% 낮은 연평균 \$23/bbl로 반영하고 있다.

2) OPEC의 원유생산 정책

OPEC의 감산 가능성은 지난해 4/4분기에 이미 예상

되던 것이었다. 다만 지난 1월 17일 제 113차 OPEC 총회에서 합의된 150만 b/d의 산유량 감산합의는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감산의 규모가 늘어났을 뿐이다. OPEC은 작년에 3번에 걸친 총회에서 증산합의와 "Price Band Mechanism" 발동에 의한 11월 1일부터의 50만 b/d의 자동증산으로 12월말 기준 감산에 참여하는 10개 회원국의 총 목표산유량은 전년대비 370만 배럴이 늘어난 2,670만 b/d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이라크의 평균 생산량(약 280만 b/d)까지를 감안할 경우, 연말 OPEC의 총 원유 생산량은 약 2,950만 b/d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OPEC 공급물량이 성수기인 2001년 1/4분기까지도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해당하는 올해 2/4분기에는 대규모의 초과공급 상황의 발생되기 때문에 난방유의 수요가 줄어드는 2월 이후부터 유가하락이 서서히 시작되어 3월중에는 큰 폭의 가격하락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급격한 유가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OPEC의 감산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며, 3월 정기총회에서 최소한 100만 b/d 이상의 감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 11월 하순 이후부터 석유시장에 대한 수급외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빨리 수급장세로 전환되었고, 이 때문에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가격 대비 25% ~ 30%나 떨어지면서 OPEC의 조기감산 논의를 불러왔던 것이다. 예상보다 큰 폭의 감산규모는 미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석유수요 위축의 가능성과 가격폭락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석유수요의 약 25%를 소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경기하락은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산유국들은 지난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까지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석유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초과공급으로 인한 저유가의 혹독한 시련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OPEC은 올해 세계 석유시장의 수요와 재고 등의 흐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매분기

별로 전체 산유량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Price Band Mechanism을 유지시켜 단기 시장가격의 등락을 부분적으로 제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150만 b/d의 조기감산 결정으로 3월 16일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추가감산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의 원유수출 정상화 여부와 석유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2/4분기에도 추가로 감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경기변동이 산유량 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라크 경제제재의 변화 가능성과 원유수출

올해로 10년째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는 유엔의 "Oil for Food" 프로그램에 의한 제한적 원유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1996년말 재개된 원유수출로 생산량은 매년 늘어나 2000년 하반기에는 최고 300만 b/d를 넘어섰고, 수출도 230만~260만 b/d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걸프전 이후 6년 동안 수출이 중단되었었던 이라크는 작년 말 현재 세계 원유시장 점유율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경제제재하에서 원유수출 대금은 전액 유엔계정으로 입금되어 안보리 승인에 따라 이라크 국민을 위한 식량 및 의약품 구입이나 전쟁 배상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유엔에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육로를 통한 요르단으로의 원유 수출과 주변국으로의 밀수출 등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것이 전부이다.

이라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등 안보리의 친 이라크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엔의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의 원유수출의 정상화 차질은 경제제재 해제를 겨냥한 후세인 정부의 숨겨진 의도로 해석하려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유엔 무기조사단에 대한

협조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경제제재의 전면해제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유엔의 "Oil for Food" 제9차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라크가 12월 16일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하였으나 1월 중순까지도 원유수출 규모가 약 150만 b/d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1월 OPEC 총회에서 이라크 정부는 감산이 시작되는 2월초까지 원유수출 규모가 200만 b/d를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만일 이라크의 원유수출이 2월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OPEC의 조기감산으로 인한 영향은 2월 이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라크가 원유수출을 정상화시킨다면, OPEC의 감산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OPEC 감산으로 세계 석유시장에 대한 이라크 원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라크 정부가 고비마다 수출중단 등을 통해 석유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비OPEC 원유 생산

1999년에 거의 정체수준에 머물렀던 비OPEC 산유량은 2000년에 전년대비 100만 b/d 이상 늘어남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증산의 영향을 반영하는 추세였다. 2000년 말까지 계속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비OPEC 증산 추세는 2001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2001년의 증산물량 규모는 전년대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 산유국 이익을 위하여 산유량 조절에 OPEC과 공동보조를 취해왔던 멕시코와 노르웨이가 OPEC의 감산에 동조하지 않은 것도 비OPEC 증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 주요 소비국의 석유재고 동향

2000년 하반기에 미국의 원유 및 제품 재고 감소 때

문에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됨으로써 8월 이후 배럴당 30달러 이상 유가강세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었다. 특히 미국석유협회(API)와 에너지부에서 매주 발표되는 미국 상업용 석유재고 통계는 Nymex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2001년 미국과 EU 등 주요 석유 소비국의 재고 상황은 OPEC의 석유생산 활동과 석유시장에서의 유가 변동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4분기와 3/4분기의 비수기 기간동안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다면 미국 등 주요 소비국의 상업용 석유재고는 일정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산유국의 원유생산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중동에서 또다시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가 발생된다면 석유선물시장에서 백워드이션(Backwardation) 상황이 지속되고 현물시장의 강세시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요국의 석유 재고구매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재고감소 추세가 연장되어 수급 불안감 확대와 그로 인한 석유시장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6) 선물시장의 투기수요

투기수요는 선물시장을 존립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단기간 대형 투기성 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상품 거래량 폭증과 함께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을 불러오므로써 상품가격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다. 90년대 들어와 선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선물시장에서 결정되는 석유가격은 곧바로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물시장의 투기수요는 석유가격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0년 하반기에 경험했던 것처럼 Nymex 선물시장으로의 대규모 투기자금 이동은 미국의 하반기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촉발되었다. 그 때문에 세계 석유수급이 공급초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과도한 유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의

재연 가능성은 그대로 남겨져 있다.

3. 세계 석유수급 및 유가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2월에 발표한 2001년 세계 석유수요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유의 연평균 수요는 전년대비 약 190만 b/d(약 2.6%) 늘어난 7,753만 b/d로 예상된다. 미국의 에너지부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세계 수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규모의 석유수요 전망은 올해 예상되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IEA의 비OPEC의 석유공급 물량은 2000년 대비 약 80만 b/d가 늘어난 4,670만 b/d로 세계 수요의 약 60%를 공급할 전망이다. 한편 1월 감산합의를 감안한 OPEC의 올해 공급물량은 연평균 2,850만 b/d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0년 대비 약 130만 b/d 늘어난 규모로 하반기부터의 증산 가능성을 포함한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석유공급은 전년대비 약 160만 b/d가 늘어날 전망이다. 분기별은 1분기에 OPEC의 조기감산의 결과로 수급균형, 4월부터 여름까지 계절적 비수기 기간 동안에는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성수기로 접어드는 10월 이후에는 점차 초과수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01년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단위: 백만 b/d)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총수요	77.7	75.6	77.0	79.8	77.5
총공급	77.7	77.4	77.9	79.7	78.2
OPEC	28.0	28.0	28.5	29.5	28.5
비OPEC	46.8	46.5	46.5	47.2	46.8
재고변동	0	+1.8	+0.9	-0.1	+0.7

OPEC의 원유생산 및 세계 석유수요전망과 요인별

변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2001년 두바이 원유의 분기별 가격은 배럴당 최고 \$26, 최저 \$20 수준으로 연평균 가격은 \$23~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로는 1분기 강보합세, 2분기 약세, 3분기 보합세를 유지하고 4분기부터 다시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유가변동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우리 나라는 석유소비 규모 세계 6위, 원유수입 세계 3위의 국가로 전량을 해외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연간 원유수입 규모는 약 9억 배럴로 전세계 석유시장 유통물량의 5%를 넘고 있다. 이 같이 우리 나라가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R&D 투자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내 석유기업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외국의 정보망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기관과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투자마저도 수익성이라는 잣대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전문인력의 육성과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수익성에 앞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0년대 이후 유가변동에 대한 선물시장의 영향력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유가 단기장세 전망은 선물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석유선물시장 전문가의 양성과 기업들의 선물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부정책이 지속성과 함께 투자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준으로 정책목표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석유비축 확대, 해외자원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지원 등 각종 정부정책들은 공허한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산유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만큼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